



진대제 장관 중국방문 “국가도 스피드 경영과 블루오션 전략 필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통부 고위 관료와 산하 기관장들과 함께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주재관도 동참했다. 진 장관은 중국방문 목적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IT 산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번 중국방문 중에 ‘스피드’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국가도 블루오션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분야를 선점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경희 기자

정보통신부가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IT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중국 상하이 메리어트호텔에서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정통부내 주요 간부들과 재외공관 IT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해외 IT지원센터 등 약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 IT 주재관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정부 부처 중 해외파견 주재관들을 제3국에 모아 장관 주재 하에 전략회의를 갖은 것은 정통부가 처음이다.

이는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IT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

1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해외에서 중국과 우리 기업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등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점에 중국 IT산업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국내 IT산업의 진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장관 ‘코스닥 IT기업 나스닥상장 적극 모색’

이날 진대제 장관은 “국내 IT 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 IT기업들의 현황파악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IT SMERP(중소기



◀진대제 정정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SMIC를 방문해 공장 설명을 듣고 있다

▼해외 IT주재관들이 중국 IT대표기업인 산다를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업 지원프로그램) 회원사 중 해외진출 중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마케팅 지원을 위한 현지 영업대행 전문 업체와 창업투자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 코스닥에 등록 중인 IT관련 국내 유망 벤처기업을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진 장관은 급부상하는 중국 IT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간의 상호협력과 공존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 장관은 또 "국내 중소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에 따른 과도한 학습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통채널 확보와 공동물류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도 함께 주문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 진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제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당장 내놓기는 어렵지만 주가지수 등 장기적인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도 블루오션 전략 필요

중국 진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의 서비스 공급업자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중국 진출 대기업이 그 역할을 맡아 동반 성장을 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대제 장관은 또 지난달 15일 중국 IT산업 시찰 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이라는 매머드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같은 다른 형태의 전략과 이를 향해 스피드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만이 잘하는 것을 차별화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스피드 경영이 국가 전반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혁신은 맥주병과 같은 단순한 데서 나와야 승자가 된다"며 "실생활이 이뤄지는 가까운 곳에서 가치가 달라져야 확실히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또 삼성그룹 직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경쟁업체와 고객을 만날 기회가 없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중국IT 성장 실감 '대책 마련 시급'

진 장관은 펜산 ZTE 산다 등 중국의 간판 IT업체들을 시찰한 소감에 대해 "중국이 우리 뒤를 바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관춘(중국판 실리콘밸리)이 제조공장 유치에 주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3년 전부터 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섰는데 외국 기업 연구소가 이미 뺨뺨이 들어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라우터 등과 같은 통신장비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다"며 "중국은 국가 신경망을 미국이나 유럽 기술에 의존하지 않



해외 IT주재관들이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IT Korea의 글로벌 위상을 점검하는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기 위해 10년 전에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의 방중에 동행한 고현진 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중국 IT산업을 둘러보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지휘한 강대영 정보통신협력국장은 “최근 소주 공업원구와 장강 하이테크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첨단산업의 현주소를 목격하고는 진을 느꼈다”며 “특히 중국의 우량 IT업체들이 풍부해진 외환 보유를 바탕으로 유명 해외기업 인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 우리 IT산업의 고도화 및 핵심기술 보호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종훈 실리콘밸리 IT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한 대다수 해외 주재관들은 그동안 국내 정보산업 육성 및 정보인프라 구축의 성과로 국제 경쟁에서 아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 정보, 지식 분야의 규범과 질서 확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글로벌 아웃소싱의 거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테스트 베드’ 로서의 강점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북아 IT R&D 허브 구축전략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참석자들은 정통부가 IT839 전략의 성과로 중국보다 경합기술에 앞서 상용화에 성공한 DMB, 와이브로, RFID, 모바일 콘텐츠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국가 간 협력 및 기술표준 관련 국제협상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진 장관 일행은 이날 오후 중국 IT산업 인재양성과 기술창출의 교두보인 청화과기원과 청화동방유한공사 중관촌서구지역 등을 잇따라 방문, 시찰한 뒤 3박4일간의 중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기 OZ 334편으로 귀국했다. ☺

